

자료명 '산업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정책 방향' 공동포럼

엠바고 11월 2일(木)자 夕刊부터(통신, 인터넷 등은 11/2(木) 10:00부터)

문의처 | 탄소중립팀 김녹영 탐장(02-6050-3804), 이시형 과장(3813)

"탄소중립 정책 솔루션 찾자"... 순환경제 활성화 필요

- 대한상의 - 한국환경연구원(KEI), 2일 '산업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정책 방향' 포럼 개최

- 제품 생산과정에서 자원순환 역량이 곧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순환경제 활성화 전략 모색

탄소중립 정책 솔루션을 찾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환경연구원이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일 상의 회관에서 한국환경연구원(원장 이창훈)와 공동으로 '산업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정책 방향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포럼은 대한상의가 그간의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정책과 관련 연구 동향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서영진 삼성전자 상무, 김희 포스코 상무, 오정화 아모레퍼시픽 상무, 조정훈 신한금융그룹 본부장,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 등 주요 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이창훈 환경연구원장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정책 관련 연구 추진 과정과 향후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산업계와의 논의와 교류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 표를 위해 협력하는 장기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이행하는데 많은 정책적 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계와 연구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관련 정책과 규제 전반을 점검해 봐야 한다"며 "특히 자원순환을 통해 원료와 연료 사용량을 줄여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순환경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현황과 과제'와 '순환경제 정책 추진현황 과 과제'에 대한 2가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신동원 KEI 탄소중립연구실장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주요국의 기후환경정책과 신산업 정책을 소개하며 국내 산업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산업구조전환과 순환경제의 이행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기술적 해결책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지원 등을 구체화해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조지혜 KEI 자원순환연구실장은 "순환경제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국내외 관련 정책 동향과 함께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과 산업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조 실장은 "앞으로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자원효율성과 순환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다"며 "순환경제와 연계된 글로벌 제품 환경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종합 토론 세션에서는 산업계 및 연구계, 정부 관계자들이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트랜드를 분석하고,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게 탄소중립 토론회를 개최해 산업계의 탄소중립 이행 지워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한상의-한국환경연구원 산업계와 함께 하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정책방향

○ 일 시: 2023년 11월 2일(목) 10:00~12:00

○ 장소: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지하2층)

○ 프로그램

10:00 ~ 10:15 개회사 및 환영사 :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10:15 ~ 10:55 주제 발표

- 발표(1):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현황과 과제

- 발표2 : 순환경제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

11:00 ~ 11:55 종합 토론 : 삼성전자,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신함금융그룹, 석유화학협회, 탄녹위